현장시선

면역력 증가를 위한 농업·농촌의 가치

변 대 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무색하게 코로나19 사태로 '나죽집산(나가면 죽고 집에 있으면 산다)'의 신조어가 생겼다.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의미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을 지키라는 안부 인사가 빈번히 오가는 요즘이다. 이렇게 외부와의 접촉을 피해 개인과 가족의 건강은 챙겼을지는 모르나 이로 인한 시장경제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우리의 미풍양속도 천덕꾸러기가 될 형국이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자 수는 3월 12일 현재 67명으로 사망자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자에서 발생했다. 특히 30대 미만 사망자는 단 한명도 없다. 이처럼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이 이뤄지면, 면역력이 낮은 사람이 이겨낼 힘이 없어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해 더욱 위험한 반면, 건강한 사람은 면역력이 좋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제주지역에서 그간 4명의 확진자가 있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전부 외부에서 유입된 경우로서 제주도가 청정지역으로 제주도민들의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반증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가운데 제주농협 차원의 만감류 소비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만감류가 가장 맛이 드는 2월에 너랑 나랑 둘이서 하루에 감귤 2개씩 먹자는 취지의 '222행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온 국민의 건강 공식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미국의 건강 포털사이트인 라이브스트롱닷컴은 기관지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감귤류, 브로콜리, 무, 토마토, 고등어 등을 꼽았다. 이 중 감귤류는 겨울철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비타민C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당분, 무기질, 유기산, 아미노산 등 여러 성분이 들어 있다. 이뿐 아니라 신맛을 담당하는 구연산은 피로를 풀어주고 염증반응을 억제해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바이러스의 공통점은 전파력이 강하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의 경우 밀접공간에서 감염이 활발하다.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건강한 인류를 위해 우리의 일상 패턴을 바꿔야 할 시점이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찾아올 코로나19와 같은 재앙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답의 상당부분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잠재돼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환경보전, 농촌경관 제공, 농촌 활력 제고, 전통문화 유지, 식량안보에 기여 등의 유·무형의 가치를 생산하고 있다. 농업은 안정적인 식량을 보장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 산업, 국민 산업의 기반이 되고,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으로 국민 삶의 질과 가계지출을 줄여준다. 또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자연 문화 경관 보존을 통해 농촌을 찾는 이들에게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하며 농촌마을을 유지해주고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이바지한다.

감기나 독감이 유행하는 겨울철, 가벼운 기침에도 덜컥 겁먹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혹여 악성 감염 증세를 보이는 것은 아닐까, 검진 갔다가 되레 병원에서 전염되는 건 아닐까 두려워 발길을 돌린다.

면역력을 강화해 애당초 병원 갈 일을 만들지 않는 것만이 최선의 예방책이 아닐까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도록 하자. 그 시작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제철 우리농산물 섭취에 있다.

사설

연이은 입도객 확진자… 방역 대폭 개선을

제주지역 코로나19 방역이 대구·경북지역에 이어 서울 확진자 입도객으로 비상입니다. 그동안 제주지역은 확진자 4명 모두 대구에서 오거나 다녀온 후 발생했고, 11일 발표된 확진자 2명의 제주방문도 서울 입도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까지 도내에서 중국인에 의한 감염이나 지역사회내 도민간 접촉으로 발생한 감염사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주의 코로나19 방역의 핵심 방향을 어디로 설정해야 할지를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도내 코로나19 방역은 지난 4일 네번째 확진자 발생때까지 대구·경북지역 여행객이나 해당지역을 다녀온 도민을 대상으로 대구 출발전 발열체크와 제주공항 도착시 별도 통로 이동 및 재차 발열체크, 본인 희망시 검체검사 지원 등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이후 서울에서 온 40대 여성 입도객 2명이 잇따라 확진자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다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이었던 40대 여성이 지난 7일 제주를 방문했고, 또 다른 구로구 콜센터 직원 40대 여성은 가족과 함께 7~8일 관광차 체류했었다는 사실들이 연이어 밝혀진 것입니다.

이제는 제주지역 코로나19 방역이 도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수칙 홍보, 코로나19 창궐지역인 대구·경북지역 입도객 검역조치 등에서 한발 더 나아가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는 서울·경기 수도권 지역 주민이나 해당지역 경유자들에 대한 방역 강화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12일 원희룡 도지사는 이를 의식한듯 국내 모든 공항의 국내선 출발장 발열검사를 시행해 달라는 정부건의를 했습니다.

도는 이와 별도로 고위험지역에서 공항·항만을 통해 제주로 오는 입도객에 대해 선제적이면서 한층 강화된 검역조치를 내용으로 한 특별방역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착한 임대인운동', 위기극복의 마중물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돕기 '착한 임대인운동'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돼 상가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야 하는 상인 입장에서 임대료 인하는 최소한의 버팀목으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주지역 '착한 임대인운동'은 3월 현재 행정기관을 비롯해 공기업, 경제단체, 사기업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참여하면서 위기극복에 큰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가 입주기업 76개 기업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임대료 30% 인하 조치에 나섰는가 하면 제주도 역시 중앙지하상가 30%, 공설시장 50%를 줄이는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금융권에선 제주은행이 소상공인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점포내 임차 업체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 30% 감면에 나섰고. 한라신협도 조합 소유 건물 임대료를 최대 50% 내렸습니다.

서귀포시상공회 회원사에 이어 매일올레시장 상가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운동은 기관이 아닌 개인차원에서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지난달 말 시장내 한 건물주를 시작으로 현재 6명(사업장 12개소)이 동참했습니다.

(주)뉴월드도 노형동 소재 빌딩 임대료를 3개월 간 최대 50%까지 인하 조치에 나섰습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다 영세상인과 건물주 간 상생을 통한 사태 극복 의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이 운동은 더 확산돼야 합니다. 제주상공회의소나 제주경영자총협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사안입니다.

'착한 임대인운동'이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참여속에 들불처럼 번져 범시민운동으로 승화된다면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제주공동체를 더욱 공고히 하는 '마중물'로도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열린마당

이 또한 지나가리라!

홍 익 준
제주 수필아카데미 회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작년 12월 중국 우한 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3개월째를 맞는 요즘,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총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기관들은 주야로 힘쓰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서울 어느 단체에서는 야근을 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숨졌다는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학생들이 감염 될까하는 걱정 때문에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3주일 뒤로 연기했다. 교육부가 전국 단위로 장기적인 휴업령을 내리기는 처음이다. 일부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학부모를 위해 긴급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현장인 학교에서는 걱정거리가 생긴 것이다. '법정 수업일수'를 초·중·고는 연간 190일이고, 유치원은 180일을 채워야 한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로 축난 수업일수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줄여 보충할 계획을 세운 상태다. 미래의 방학을 3주만큼 앞당겨 쓰는 식이 그야말로 조삼모사 방식이 된 셈이다.

자고 일어나면 자꾸 늘어나는 확진자, 사망자가 늘고 있지만 격리해제자도 조금씩 늘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도 없지는 않다.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해야 하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하면서 감염예방규칙 등을 생활화하고 지킨다면 지금에 어려운 사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원 지사, 코로나19 집단감염 차단 당부

집단근무·이용시설 관리

○…원희룡 제주지사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차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

원 지사는 12일 오전 코로나19 대응회의에서 서울 구로 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제주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 근무·이용시설에 대한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

제주도는 이에 따라 감염관리 책임자(과장급 이상)를 지정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근무자 및 사업장 관리,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 유지 등을 도지사 지침으로 시행. 고대로기자

농산어촌시설 특별방역 실시

○…제주시가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 시설물을 대상으로 방역 활동을 한층 강화.

시는 시설별 손소독제 배부와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 대응지침 홍보는 물론 임시휴관이 끝난뒤에도 특별방역을 실시한다는 방침.

시 관계자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감염예방 생활수칙 홍보와 특별 방역소독 등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 이윤형기자

면세점 "코로나19로 힘들다"

○…제주지역 면세점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내·외국인 이용객의 급감에 따라 매출액이 동반하락하며 울상.

특히 최근 타지역에서 제주를 찾았던 확진자의 방문으로 12일 제주공항 내 JDC면세점이 19년 만에 휴점하고, 이용객 감소로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영업시간을 단축.

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액이 크게 줄었고 확진자 방문까지 이어져 손해가 만만치 않다"며 "빠른 시일 내 해결되길 바랄 뿐"이라고 토로. 백금탁기자

부 고

현창호(제주레미콘 이사) 아버지 **연주현공 승백(향년 77세)**께서 서기 2020년 3월 12일 12시 3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3월 14일(토요일)
▶발인일시: 2020년 3월 15일(일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빈소
▶장 지: 양지공원

부 인 조경자
아 들 현창호 며느리 강민주
창은 강지영
딸 현수임 사 위 김성훈

※ 연락처 : 현창호 010-2698-9170
현창은 010-6600-9170
강민주 010-4804-5739
강지영 010-6288-5109
김성훈 010-2691-9170
현수임 010-5001-9170

부 고

강동석(축산진흥원) 조모 **남양홍씨 무표(향년 103세)**께서 서기 2020년 3월 12일 14시 5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3월 13일(금요일)
▶발인일시: 2020년 3월 14일(토요일) 오전 8시 30분
▶발인장소: 중앙병원(이호동 소재) 장례식장 2분향실
▶장 지: 새별오름 선영

아 들 강남규(故) 며느리 김복선
딸 강순자 사 위 진영언(故)
남수 이순재(故)
명호 김진부
해생 박정민
손 자 강동석 손 부 이민정
봉석 홍윤정
우석
손 녀 강재희 손 서 김인성
외손자 진동철 외손녀 진경희
진동우 이안심
진봉일 이현주
진동석 김희정
이현수 박소현
김동현 박소희
김상현 박재연
박진우

※ 연락처 : 강동석 010-3693-7088
김진부 010-9898-6688
박정민 010-2689-2391
진동철 010-2699-7349
이안심 010-3066-9985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광산김공 영식(대동공업(주) 제주대리점 대동기계·남성상사 대표(향년 86세)** 喪時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뵈옴이 도리이오나 경황이 없어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3월 13일

부 인 김경순
아 들 김수용
수찬
태형
봉구
성구
딸 김미현
미정
며느리 김유랑
김현실
사 위 고종호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발효기(콤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펠렛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 010-3693-2000, 010-2696-987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 -5552